

오륙도 칼럼



동길산

바람이 따뜻하다. 훈풍이고 춘풍이다. 바람이 따뜻하니 눈에 보이는 것도 따뜻해 보인다. 밀려가고 밀려오는 바닷물도 따뜻해 보이고 밀려가고 밀려오는 바닷물에 젖은 몸들도 따뜻해 보인다.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건 날들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이기대를 끼고 있는 해안길. 마주 오는 사람 표정이 따뜻해 보이고 바다를 보는 눈빛이 따뜻해 보인다. 누구는 엽

피쓰리를 들으며 걷고 누구는 휴대 폰에 문자를 눌러대며 걷는다. 분명 따뜻한 음악을 들으리라. 분명 따뜻한 문자를 보내리라.

식물이라고 다를까. 매화가 꽃망울을 일찌감치 내민 건 바람이 따뜻하다는 걸 일찌감치 알아차린 덕분. 이제는 개나리도 알아차려 화사한 꽃을 내민다. 속이며 냉이며 달래도 알아차려 꽃보다 진한 향기를 내린다.

향기는, 아는 사람이 알고 맡아본 사람이 맡아본다. 이맘때면 길에 불어서 속이며 냉이며 달래며 향기를 쬔 사람들. 향기를 아는 사람이고 향기를 맡아본 사람들이다. 향기가 땀에 밴 사람들이다. 그들과 나란히 불어서 봄나물을 쬔 채 속을 흠뻑 들이켜 보라. 사람에게서 나는 꽃보다 진한 향기를 들

이켜 보라.

향기를 쬔 사람은 대개가 아낙. 처녀는 얼굴이 탄다고 꺼리고 남정네는 동작이 불편타고 꺼린다. 아낙이라고 얼굴 타는 게 아무렇지 않고 동작이 편할까. 삶의 향기가 땀에 밴 아낙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향기를 쬔다 구부린 등이 세상 어느 곡선보다 부드럽워 보이고 따뜻해 보인다.

등 구부린 어머니의 땀상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차려주는 땀상은 모처럼 따뜻하다. 등을 구부려 차린 땀상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종종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차려주던 땀상. 소문난 맛집을 다녀 봐도 그 때 그 맛은 좁게 만나기 어렵다. 어머니가 등

을 구부려 차린 땀상이여. 봄나물 향기 그윽한 토장국이며.

나는 잠이 많다. 봄에는 더 많다. 춘곤증이다. 라디오에서 들은 얘인데 춘곤증에는 뿌리를 먹는 게 소가 좋다. 언 땅에서 잔뿌리가 굵어졌을 봄나물이 그렇다. 냉이며 달래가 그렇다. 산에 들에 그냥 나는 것 같아도 그냥 나는 건 하나도 없음을 봄나물이 알려준다. 나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이 봄날이 알려준다.

잠이 많다는 건 꿈이 많다는 얘기도 하다. 춘곤증이란 말이 있는 걸 보면 봄이 되면 나만 잠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남도 그렇단 얘기. 봄엔 누구나 꿈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봄날 꾸는 꿈엔 누구나 새순을 틔여 올리라. 새싹을 파릇파릇 틔우리. 지금은 아무 것이 없

는 나무도 꿈이 가진 생명력으로 잎을 불러모으고 꽃을 불러모은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막막한 그대. 주저앉으려는 그대. 그대가 잎을 불러모으고 꽃을 불러모으는 나무다.

봄 바람에 나부끼다

올 봄은 비가 잦다. 입춘 지나고 며칠을 달아서 비가 내리더니 경칩 지나서도 쫄쫄이 비가 오고 내일도 레도 비가 온다는 예보다. 덕택에 땅은 축축하다. 땅을 밟는 갑축도 축축하고 갑축이 마음에 전해져 마음까지 축축하다. 봄을 타는 게 남잔지 여잔지 헷갈리지만 뭐 어떠랴. 마음이 축축해져 내내없이 봄을 타 보는 것도. 봄바람에 잠시잠시 나부껴 보는 것도.

이참에 나도 봄을 타 보자. 봄바람에 나부껴 보자. 지나간 사람을 생각해 보고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본다. 주가만 했던 사람이 있고 받기만 했던 사람이 있고 주고받았던 사람이 있다. 끝을 예상하고 끝난 사람이 있고 끝을 예상하지 못하고 끝난 사람이 있다. 사람으로 하여기빠서 터질 것 같은 날들. 사람으로 하여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날들. 이제 다 지나간 사람이고 지나간 날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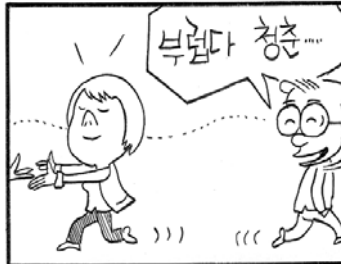
지나간 사람이고 지나간 날들이 라곤 해도 아쉬운 건 있다. 잡혀주지 못한 게 아쉽고 잡혀 줬더라도 더 잡혀 주지 못한 게 아쉽다. 그때그때 충실하지 못한 게 아쉽고 충실했더라도 더 충실하지 못한 게 아쉽다. 아쉬워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이 봄날. 지나간 사람 지나간 날들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잡혀 주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자는 생각의 뿌리가 굵어지는 이 봄날. 봄나물을 담은 소쿠리가 한 소쿠리 가득이다.

시인·dgs1116@hanmail.net

신선대

<170>

채규종



의해 본다.

그렇게 된다면 보행자와 충돌도 막고,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도 늘리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류용규 (대면6층)



선웅의 1000자 지혜

자존심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림 한다>는 말이 있다. 되지 못한 자가 큰소리로 뽐뽐 치며 아니꼽게 오만을 떠는 사람을 비꼬아 하는 말인데 주위에 <냉수 마시고 갈비트림 하는 사람>들을 보아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다.

물론,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어 남보다 뛰어나게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른들의 말대로 하늘이 준대로 살면 변이 없지만 그걸 깨면 망신살이 불어남의 우스갯말이 되곤 한다.

제(齊)나라에 아내와 집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을 둔 것이 못마땅한 아내를 걸맞으면 '마누라 하나도 잘 못 챙기면서 흑까지 벌였소? 그래도 다른 남편들은 벼슬이라도 하고 좋은 친구를 하고 놀기라도 하는데 영감은 허구한 날 집에만 틀어박혀 뭘 하려는 거요?' 하고 핀잔을 주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지 남편은 어느 날부터 밖에 나갔다가 하면 거나하게 취하여 끙끙끙 트림을 하면서 돌아오곤 하였다.

그의 아내가 누구와 하고 마셨는지 물으면 그때마다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과 놀다왔다고 했다.

아내가 첨에게 말했다. "영감이 나갔다가 하면 언제나

배를 두드리며 돌아오고, 함께는 사람을 몰으면 지체 높고 부유한 사람이라 하는데 어 땡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번이라도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나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지 궁금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 뒤를 따라 나섰는데 종일을 보아도 남편과 이야기하는커녕 인사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더니 얼마 뒤, 남편은 동성 밖에 있는 공동묘지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묘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다 지낼 때쯤 다가가서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구걸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남편이 배를 채우는 방법이었다. 아내는 실망하고 돌아와 예전처럼 귀한 사람들과 마시고 왔다고 뽐내었다.

이것은 한갓 옛 고사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도 남 욕하기 전에 <냉수 먹고 이 수사다> 망신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나 자주 되돌아 볼 일이다.

번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경찰서 앞 주·정차 단속을

10여년 이상 홍물로 방치된 옛 경찰병원 부산 본원 건물이 부산 남부경찰서 신청사로 탈바꿈 된지 제법 되었다.

경찰서가 들어서니 대중물 일대의 대우그린, 삼익, 신원, 청구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밤늦게까지 불 밝힌 경찰서 덕분에 치안에 한결 마음 놓고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

경찰서 주위 차도에 불법 주차가 기승이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는 경찰서의 주차장 부족 때문인 듯 한데 특히 아침 출근 시간이 더 심하다.

차량통행이 그리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바쁜 아침 출근길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차량들이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서 앞에서의 즉 늘어난 불법 주차 차량들은 '경찰서 앞인데 이렇게 불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남부경찰서로 이전

동성하이타운 앞 교통정체 해결해 달라는 감만중 박필중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먼저 독자의 소리에 귀하의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동성하이타운 앞부터 대연동 석포농협까지의 구간에 차량 꼬리물기 단속 실시는 남부경찰서 소관업무로서 남부경찰서로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구청 교통행정과(☎607-455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재원 (교통행정과)

그물망 설치 적극 검토

배수로 입구 그물망 설치를 제안하신 대연5동 황승환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건전한 산관관리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황령산 계곡 일원에 대하여 수해복구 및 정비공사를 시공 중이며,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곡의 바닥과 기슭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보강공사를 하고 있으며, 유수의 유속을 감소시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또한 모래·자갈의 저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면 근본적으

로 토사, 돌자갈 등의 유출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며, 귀하의 건의와 같이 계곡수의 유입부분에 거름망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속과 침수장의 규모, 경사도 등 장소의 여건에 따라 시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거름망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희준 (지역경제과)

알립니다

지난호 3면에 게재된 용호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면검인가 보도는 조합임원(감사, 이사)의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詩가 있는 풍경

봄의 소나타

한 두들 얼어 있던 대지(大地)가 스펀스스 불췌어 오른다

머언 지평선 위 하얗게 부는 바람 푸른 하늘로 동장군(冬將軍) 날리고 눈빛 시린 햇살이 온기를 내려 얼음 뜬 개울물 유혹하면

하얀안 적막(寂寞) 속 숨죽이며 인내하던 매화나무 한 겹 두 겹 조심스레 외투를 벗어 두근 거리는 가슴 안고 수줍은 새악시 오이씨 버선발로



권미숙(시인·용호1동)

봄의 서곡(序曲)을 부르며 온다 아! 움츠린 가슴 기지개 펴고 황량한 세상에 오색잔연(五色儼然)한 등불을 밝힌다

남부중·고등학교 학생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청소년, 성인(남·여)
- 모집인원 및 기간 : 제한 없음, 수시모집
- 장 소 : 문현3동, 문현기동대 옆 건물(옛 남부경찰서 자리에서 이전)
- 특 전 : 수업료 무료, 교과서 제공
- ※문화화 가족과 외국인 주부를 위한 한국어 무료강좌도 실시합니다.
- 후원계좌번호 : 국민은행 563401-01-186289
- 연락(교무실) : 622-1205, 010-4544-4734

■살며 생각하며

배려와 양보가 아쉽다

오랜만에 시내버스를 타고 오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내가 버스에 올랐을 땐 버스 안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중엔 머리가 희고 허리가 굽어 서 있기가 불편한 나이 드신 분들이 제법 있었다.

물론 노약자석엔 젊은이들이 앉아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었는데 도무지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으며 일반석이라도 노인들을 보면 일문 일어났던 예전 모습을 눈 닦고 보아도 힘들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래서는 안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리에 꼭 찼다.

예전엔 노인들이 올라타면 일문 일어나고 만약 일어나지 않고 버틸 경우 어른분들이 직접 나서서 나무라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착하고 선량한 모습을 흔히 찾아보기 어렵다.

한 두 정거장 지나면 내리면서 노인들이 올라와도 거의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내릴 정류장까지 끝까지 앉아서 가는 양적속들

이 의외로 많은 것이다.

물론 젊은 학생들도 아침에 일찍 등교하고 온 종일 공부하느라 피곤할테지만, 그래도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젊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फल 젊은 열정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얼마든지 희망과 기대를 가진 나이로 생각하고 그런 젊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자산인데...

저마다 집에서 귀한 아들딸이나 자신이 피곤하니 굳이 양보하는 단어보다는 자신의 휴식이 중요하리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예의, 공중도덕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도 없고 무법천지가 되며 인간사회의 질서마저도 사라져 삭막하고 각박한 사회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다.

그래도 젊음을 가졌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밝고 희망에 찬 미래를 내다보며 조금의 힘들과 어려움도 잘 견딜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작은 마음과 정성이라도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들에게 이야기 한다. 그럴 때 그들의 반응 또한 우리를 반성케 한다.

학교나 가정에서 자녀 기본 도덕이나 예절교육에 조금만 더 양보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덕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치열한 입시경쟁과 성적지상주의에서 살아남으려 지식 쌓기에만 몰두하는 요즘 아이들이 어찌 보면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해 보인다.

그래도 내 아이들에게 나 아닌 타인을 위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싶다.

비록 그들이 나오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모든 젊은이들에게 항상 약자를 생각하여 봉사하고 양보하는 마음자세를 지녀 달라고 기성 세대들은 단단히 말하고 가정의 부모님이나 학교의 선생님들도 자녀나 제자들에게 그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박희희(용호3동)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우 608-701)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필자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